

수입자유화와 낙농에 관한 소고

이 만 재
서울우유 협동조합

Current Issues on the Free Trade System for Dairy Industry

Man Jae Lee
Seoul Dairy Cooperative

ABSTRACT

The world dairy industry has been driving their dairy policy on the basis of the self-supporting principle. With progressing the GATT negotiation, the objective production amount has been reduced to maintain the optimum level, which decreasing the extra supply and over-stock before the U.R talks. The Oceania countries, where has the price competition capability, are continually increasing the milk production amount. Even through the USA is trying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amount with new export policy, the U.S.S.R collapse-down caused to decrease the milk production in world-wide basis. Because the U.S.S.R produced the highest amount of milk in the world. Moreover Europe Union countries, which recorded the half amount of dairy products in the world was decreasing their milk production. Therefore, about 4% of shortage is encountering at major dairy production countries in the standpoint of supply and demand.

The drastic increasement of foreign dairy product import affects the domestic dairy industry with raw milk replacement and new dairy food demands creation since 1995, the initial period of free import system. Now, the domestic dairy industry are facing the inevitable problems such as the correction of producing and processing system. First of all, our dairy industry should resettle down the dairy production structure on the basis of self-supply of raw milk and offer the accurate dairy food informations. We still need to improve the raw milk quality.

Also, more efforts are needed to have proper raw milk price policy. General domestic policies including the settlement of raw milk supply and demand, the reliability of inspection system in raw milk, ideal raw milk price system, centralization of raw milk collection, specially separated dairy organization should be improved legally in our dairy industry.

I. 머리말

1995년은 우리나라 낙농사상 우유생산 200만톤을 돌파하는 역사적 의미가 새겨질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치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제품 시장이 세계무역시장에 개방되어 이제 한국의 낙농이 아닌 세계에서 한국의 낙농을 운영하여야 할 원

년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아직 한국의 낙농은 유방염우유를 거론할 정도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만큼 낙농가, 유업체, 정부, 학계 누구 할 것없이 세계 낙농에 눈 뜨고 하루 빨리 세계수준의 낙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낙농의 움직임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고 그러한 결과가 우리 낙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세계의 낙농상황

2억2천만두의 젖소가 4억5천만톤의 우유를 생산(1993)하고 있는 세계의 낙농산업도 UR이후 새로운 변화와 질서로 그 구도가 변형되고 있다.

총생산된 우유의 약 9%인 약 4천만톤의 우유가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그리고 치즈로 만들어져 거래되고 있는 세계유제품 시장에 그 중 80% 이상의 물량이 보조금에 의하여 거래되어 왜곡된 가격구조와 수급체제로 점철되어온 세계낙농은 이제 시장경제원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낙농국가 또는 주요 낙농생산 지역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세계대전 이후 우유와 유제품의 자급을 위한 증산 일변도의 낙농정책으로 일관하여온 EU와 미국은 1970~1980사이에 엄청난 재고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고비용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EU는 물량통제수단을 채택하여 생산할당제의 도입을, 미국은 가격통제수단인 패리티(Parity)지수의 억제를 통하여 수급위기를 진정시키려 하였던 바 결과적으로는 미국낙농이 가격인하와 생산성 증대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일치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유럽낙농에 대승하는 상황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세계무역량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EU의 낙농은 앞으로 생산감축은 물론 대폭적인 원유 지지가격수준의 인하라는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세계 유제품시장에서 날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미국낙농은 국제경쟁력에 접근된 가공 원료유의 지속적인 증산과 보다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생산구조 및 생산성의 극대화가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속속 입수되고 있다.

1990~1995의 주요 낙농지역별 생산변동도 기간중 가장 많은 600만톤의 물량증가를 보인 북미지역이 유럽연합에 이어 2위의 자리를 더욱 확실히 굳히면서 불원한 EU도 능가하여 세계 최대의 우유생산지역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

고 있으며 반면에 EU는 기간 중 830만톤의 감소가 시현되었고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공동농업정책)에 의해 지금까지 6%의 할당량 감소에 추가로 4%를 삭감할 계획과 UR타결에 따른 수출보조금부 수출물량의 약 19%를 200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부담(Table 2)과 또 18만톤의 MMA(Minimum Market Access-최소시장접근) 개방 등의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북미와 유럽의 지역간 낙농생산의 위상이 뒤바뀌는 예상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Table 1>

그러한 양상은 <Fig. 1>과 Table 3에서와 같이 1990년에 탈지분유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4%이던 EU는 1995년에 28%로 위축되고 같은 시기에 2%에 불과하던 미국의 시장은 23%로 11배나 급진장한 현상을 보더라도 쉽게 짐작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 증가 현상이 UR타결 전후인 1990~1995사이에 매년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이 짧은 기간 중 400만톤이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모두 200만톤씩 증가한 이 지역은 기간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28.2%를 기록하였다. 예상된 바와 같이 세계낙농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수출보조금이 아예 없거나(NZ) 가장 적게 준(AUS) 이들 지역은 UR이후의 세계유제품시장의 판도변화를 일찌감치 예상하고 서둘러 증산을 시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지역의 우유 증산을 자극시킨 주요한 요인은 <Table 4>에서와 같이 신흥 아시아경제성장국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유리한 오세아니아국들의 침을 삼키게 한 데 있다.

중앙아시아와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열대지역으로 젖소의 사육이 부적합하여 모든 유제품을 수입하여 왔다.

최근 이들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힘입은 우유소비시장의 확대는 1990~1995사이에 무려 23%나 신장되어 같은 기간의 세계시장증가율 7%에 비하여 대폭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두드러진 우유생산 증가는 인도로서 같은 기간에 13.5%의 높은 증가율을

Table 1. 지역별 세계우유 생산변동 추이 (323개 주요 낙농국 집계치)

(단위 : 천 톤)

지 역	1990	'91	'92	'93	'94	'95전망 (지역점유율)	'90~'95 증감율
북 미 (미국, 멕시코, 캐나다)	84,310 (21.3%)	84,984	86,773	86,523	88,392	90,470 (23.9%)	+7.3%
남 미	24,547 (6.2%)	24,240	25,785	26,685	27,649	28,712 (7.6%)	+17.0%
유럽 연합 (EU 12국)	118,020 (29.9%)	113,890	112,198	110,980	110,456	109,794 (28.9%)	-7.0%
북 서 유럽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13,430 (3.4%)	13,002	12,794	12,891	12,973	12,947 (3.4%)	-3.6%
동 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20,576 (5.2%)	18,604	16,820	16,415	15,940	15,950 (4.2%)	-22.5%
구 소련 권 (러시아, 우크라이나)	80,075 (20.3%)	74,380	66,351	65,176	60,800	58,500 (15.4%)	-27.0%
남 아 시 아 (인도)	27,500 (7.0%)	28,200	29,400	30,600	30,000	31,200 (8.2%)	+13.5%
아 시 아 (중국, 일본)	12,347 (3.1%)	12,906	13,612	13,615	13,365	13,550 (3.6%)	+9.7%
오 세 아 니 아 (호주, 뉴질랜드)	14,181 (3.6%)	14,700	15,521	16,265	18,068	18,185 (4.8%)	+28.2%
계	394,986 (100%)	384,906	379,254	379,150	377,643	379,308 (100%)	-4.0%

주) 1. '94 가집계치, 2. 주요 낙농생산국을 32개국으로 선별한 것임.

자료 : USDA, FAS, D, L & P, Divis., 1995. 4

Table 2. EU의 보조에 의한 수출 한도량

(단위 : 천톤)

Year	Butter	SMP	Cheese
Actual			
1993e	195	230	500
1994e	189	282	470
Maximum allowable			
1995	447	297	373
1996	431	286	359
1997	415	276	346
1998	399	265	332
1999	382	254	319
2000	366	243	305

자료 : BATT, summary of the UR / Dairy Sector, 1994.

NZMAF,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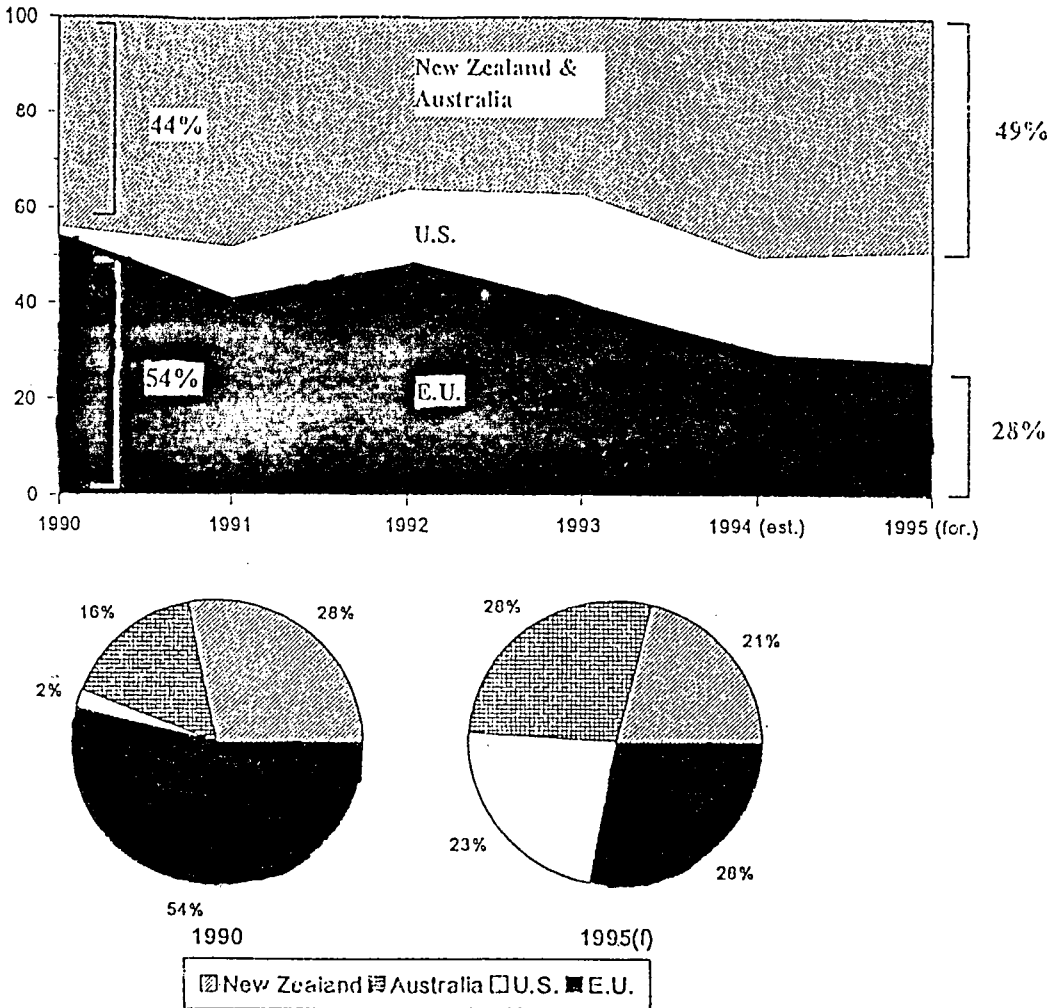


Fig. 1. 탈지분유의 수출시장 점유율 변동추이

자료 : USDA,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1995. 4

보여주었고 중국과 일본의 증산도 눈에 떨 만큼 향상되고 있다. 남미에서도 같은 기간에 420만톤이나 우유가 증산되어 17%의 증가율을 실현함으로써 오세아니아 다음으로 높은 신장세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낙농생산지역의 전체 생산은 이 기간중 오히려 4%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동구와 구 소련의 체제붕괴 이후 약 2,600만톤이나 되

는 우유가 감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1990년도만해도 연간 1억톤의 우유를 생산하여 EU와 맞먹는 생산을 하였고 또 그만큼 소비가 되었던 지역이나 지금은 7,400만톤의 생산에 머물고 있어서 2,600만톤의 우유가 불과 5년만에 감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의 곡물감산과 맥을 같이하면서 기간 중 감산된 양만큼의 소비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면 향후 세계유제품시장의 가

Table 3. EU의 유제품생산 변동상황(1~10월)

	1992	1993	Change	1994	Change
	(kt)	(kt)	(%)	(kt)	(%)
Liquid milk	22,118	22,018	0	22,849	4
Butter	1,164	1,260	-1	1,214	-4
Cheese	3,800	4,279	1	4,321	1
Whole milk powder	749	742	-1	769	4
Skim milk powder	969	1,038	7	962	-7

자료 : ABARZ, Outlook 95 / Agri., 1995. 2

Table 4. 아시아 국가들의 유제품 수입현황(원유 환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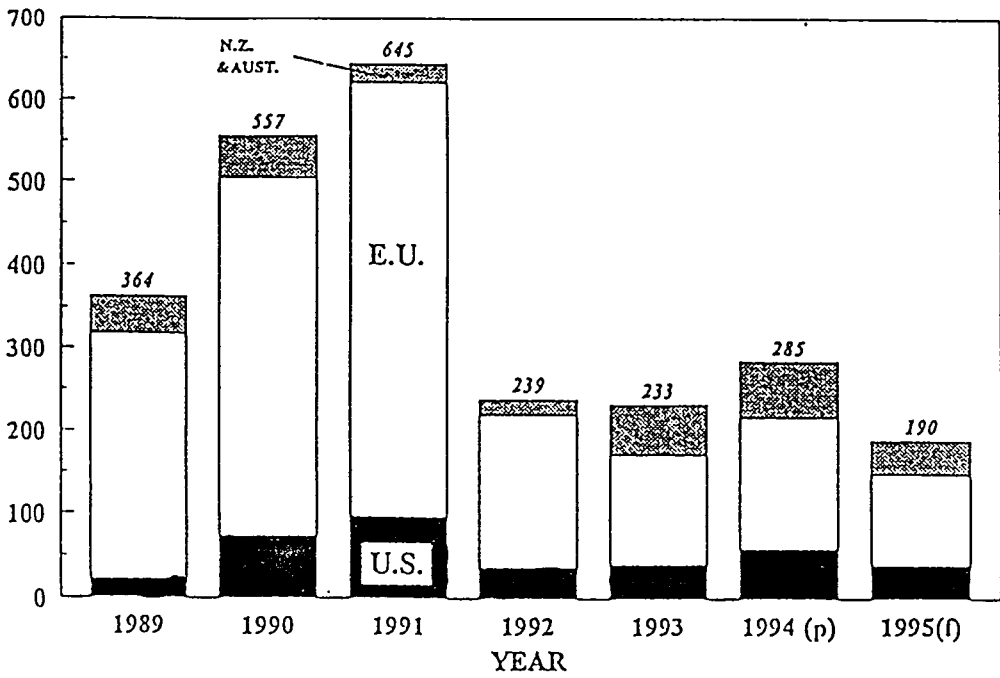
	1970	1980	1990	1995 f
	(ML)	(ML)	(ML)	(전망) (ML)
South East Asia				
Indonesia	250	580	400	600
Malaysia	420	760	890	1,280
Thailand	300	440	680	900
Singapore	250	350	450	510
Philippines	550	990	1,200	1,300
	1,770	3,120	3,620	4,650
North Asia				
Japan	1,200	2,300	2,900	3,200
Hong Kong	140	210	380	450
Korea	80	80	100	200
Taiwan	140	500	600	800
China	20	35	300	350
Vietnam	na	45	75	150
	1,580	3,170	4,355	5,150
Central Asia				
India	50	50	50	50
Sri Lanka	180	200	300	340
Pakistan	70	80	100	110
Bangladesh	50	80	90	150
	350	410	540	650
World market	25,000	28,000	30,000	32,000

자료 : ABARZ, Outlook 95 / Agri., 1995. 2

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상황전개는 국제시장에서의

유제품가격의 대폭적인 상승(특히 탈지분유와 버터), 오세아니아와 남미지역의 생산증가율의 급상

1,000 MT NDM



1,000 MT BUTTERF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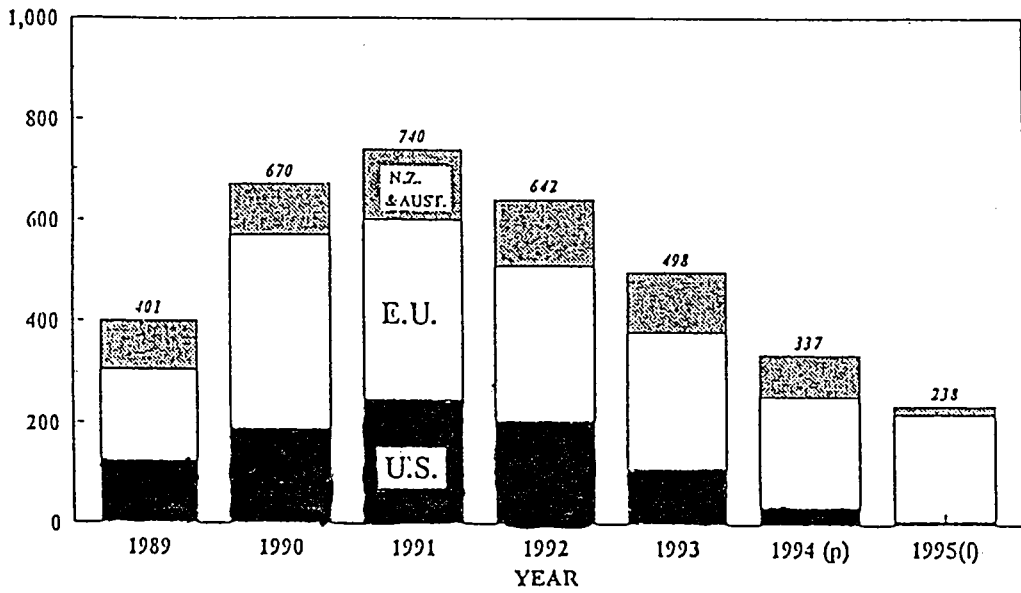


Fig. 2. 탈지분유와 버터의 재고변동 추이

자료 : USDA, FAS, 199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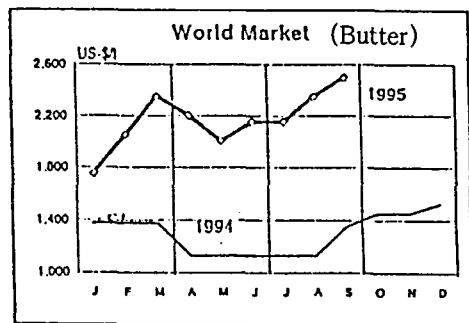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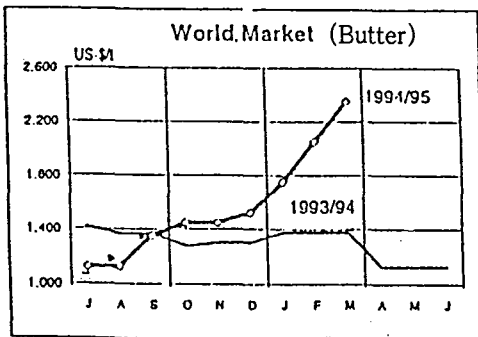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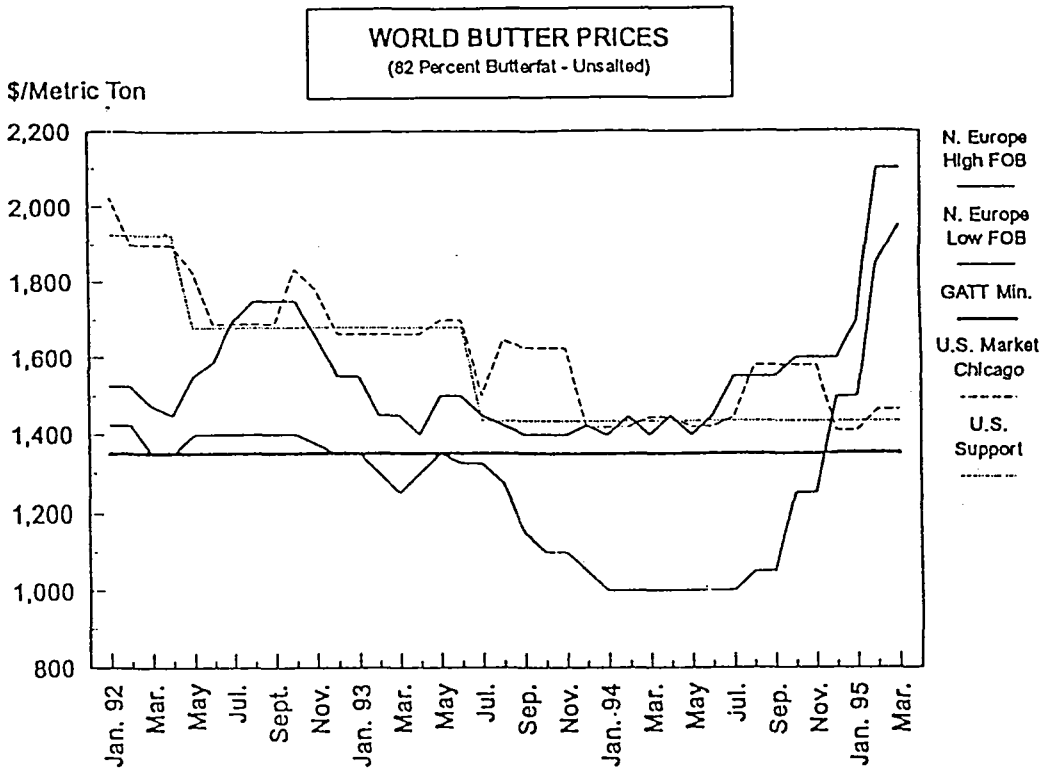


Fig. 3. 버터가격의 추이

자료 : USDA, FAS, D, D&P Div., 1995. 4 AgraEurope, Preserved Milk, 1998. 8~10

승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와 생산의 잠재력이 세계낙농을 주도하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예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제품 무역량의 주도적 제품인 탈지분유와 버터의 재고가 Fig. 2와 같이 지난 3년간 대폭 감소되고 올해 부터 적용된 수출보조금 삭감에 의한 수출한도량의 감축은 Fig. 3, 4, 5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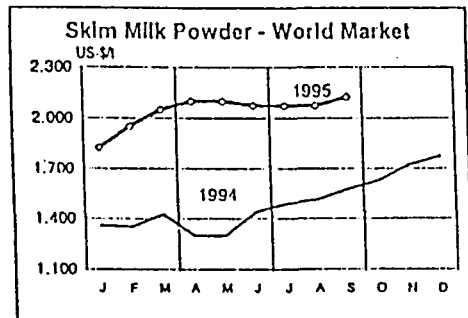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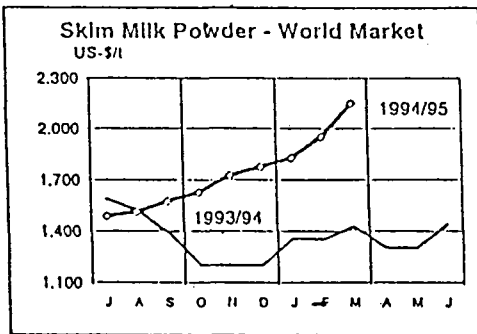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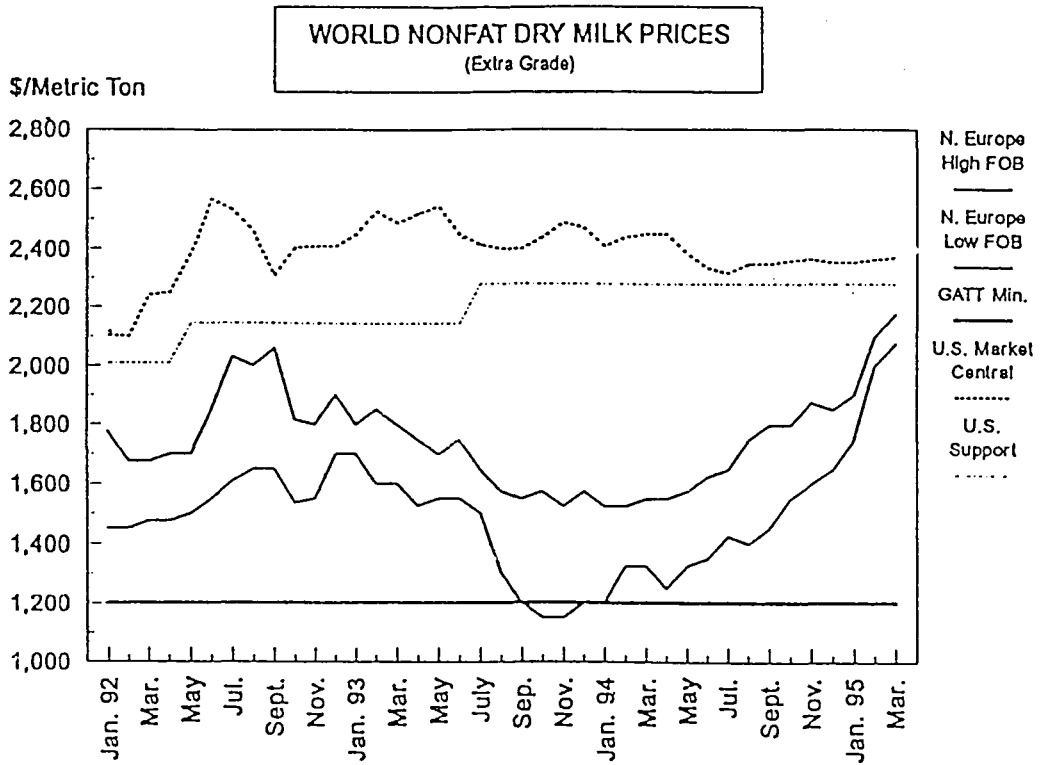


Fig. 4. 탈지분유의 가격추이

자료 : USDA, FAS, D, D&P Div., 1995. 4 AgraEurope, Preserved Milk, 1998. 8~10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등의 국제가격을 모두 금년 1/4분기 부터 U\$2,000/MT 이상으로 대폭 인상시켜 버렸고 9월 현재는 U\$2,250~2,500/MT로 또다시 기록을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세화율에 적용될 경우 수입통관후 가격이 5,600원에 육박하게 되어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공급부족의 양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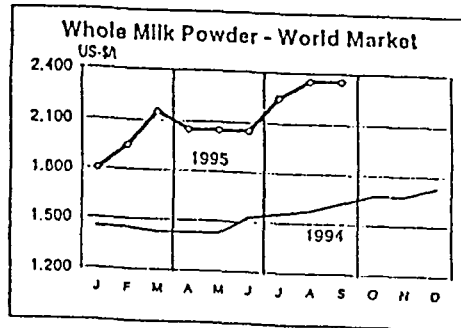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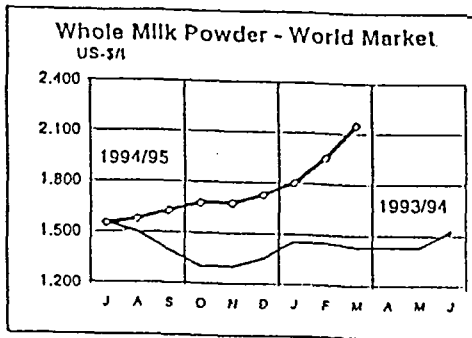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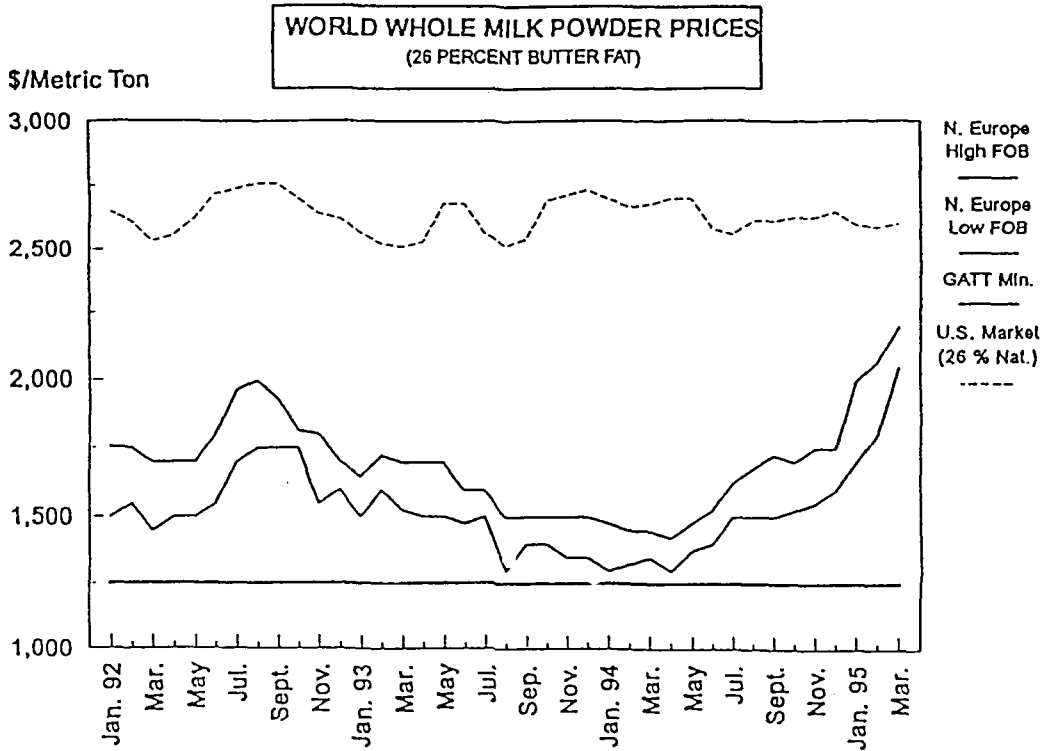


Fig. 5. 전지분유의 가격추이

자료 : USDA, FAS, D, D&P Div., 1995. 4 AgraEurope, Preserved Milk, 1998. 8~10

보이고 있는 세계낙농의 추이로도 보아 품목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이를 보일 국제시장의 양상에 편승하여 국내 낙농시장의 가격도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리라 예견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Fig. 6에서와 같이 1970~1980년대

의 세계낙농이 공급과잉과 EU, 미국의 수출보조로 왜곡되어 버린 유제품시장에 실의한채 1970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으나 최근 UR에서 케언즈그룹의 주도적 일원으로 활약한 후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것은 EU의 CAP개혁안 실시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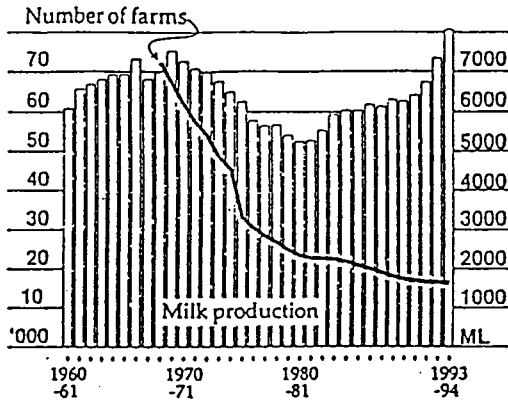


Fig. 6. 호주의 낙농생산추이

자료 : ABARZ, Outlook 95 / Agri., 1995. 2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호주 유제품이 동남아의 신흥경제성장국가들에게 Fig. 7과 같이 매우 짙은 재미를 보고 있고 그 여세를 몰아 한국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도 근간 두드리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지역 낙농의 판도변화와 UR이 제공해준 시장기능의 다소간 회복에 따라 세계낙농의 상황은

- (1) 자급위주의 방위적 저위 경쟁력 낙농국 - EU, 일본
- (2) 자급과 수출의 기회를 동시에 노리는 중위 경쟁력 낙농국 - 미국, 남미
- (3) 수출 위주의 공격적 고위 경쟁력 낙농국 - 호주, 뉴질랜드
- (4)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 - 소련, 동구, 인도, 중국
- (5) 대량 소비 잠재력을 가진 국가 - 동남아 신흥경제 성장국가

등으로 분류된 지역적 국가별 이해득실에 따라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와 같은 구도하에 세계낙농시장은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2.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오늘과 내일

1) 개황과 문제점

(1) 생산

- 1995년 총산유량 200만톤 약간 상회 예상
- 1994년 191만7천톤 생산으로 5~6%증가
- 낙농가수는 1985년 이래 매년 감소하여 95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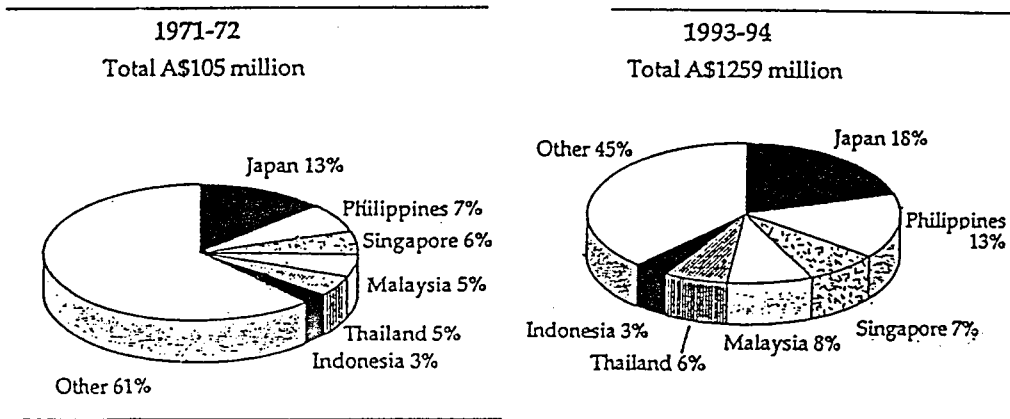


Fig. 7. 호주유제품의 수출지역변동상황

자료 : ABARZ, Outlook 95 / Agri., 1995. 2

재 24천호로 90년대는 매년 6.3%씩 감소, 특히 94~95에는 거의 10%씩 감소

- 그러나 총산유량과 젖소두수는 증가하여 규모화, 생산성 증가는 지속적으로 진행
- 90년 대비 95년은 젖소두수 10% 증가하였으나 총산유량은 14%이상 증가, 1980년대 이후 두당 산유량은 매년 2~3%씩 증가하여 미국의 생산성 증가 속도를 유지하고 특히 최근 사양기술의 발달과 사료공급여건의 개선으로 빠른 속도로 생산성 증가 기록
- 같은 기간 중 낙농가수는 23% 감소하여 호당 사육규모는 15두에서 23두로 확대되어 경쟁력 확보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 전국낙농생산기반의 44%를 점하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낙농가의 대폭적인 감소 불가피와 경쟁력 약화 및 인력부족으로 앞으로 5년후 낙농가수는 현재 23천호에서 13천호로 격감 예상되고 사육두수는 현상 유지되어 호당 사육규모는 40두에 육박하여 경쟁력 더욱 강화
- 특히 1993년 도입된 원유의 위생 차등 가격제 실시로 위생적 유질 선진국 수준에 육박
- 낙농의 세계화 접근, 경쟁력 확보 가능성 실현
- 그러나 (1) 원유가격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가격경쟁력 회복 불능 상황-낙농가의 자숙 필요
- (2) 원유의 집유 및 검사제도의 불완전으로 유질개선의 한계노정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완전한 경쟁력확보 가능

(2) 유가공

- 1994년말 현재 44개 유업체가 62개소의 유처리장 또는 유가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917천톤의 처리능력과 3,087천톤의 가공능력으로 총 500만 4천톤의 원유를 처리, 가공할 수 있음
- 집유장은 335개소로서 하루 9,555톤/연간 348만 8천톤의 원유를 집유할 수 있음

- 처리가공능력은 원유생산량의 2.5배 보유, 집유능력은 1.7배를 보유하고 있음
- 1994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유제품은 38,690톤으로 총유제품소비량의 18.6%를 차지, 1995년은 25%이상으로 급증 예상(Fig. 8과 Table 5)
- 탈지, 전지분유는 수입감소, 조제유장분말, 우유합유조제 식료품, 버터조제품 등은 급증하여 분유류의 수입방어 관세화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함
- 이들 제품은 주로 저급, 저렴한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유제품의 저급화가 불가피하고 포장과 선전만 고급화하여 유업체의 이익증대에 주요한 몫으로 기여
- 조제된 분유류의 이용이 가장 많은 가공음용유의 수입조제분유 사용비율이 급증하였으나 원유사용제품에 비하여 소비자호격감
- 100% 원유 사용 가공음용유의 소비는 신장되나 수입원료 사용 음용유의 소비는 둔화 또는 감소추세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유업체들의 유가공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는 대목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낙농의 계절별 우유수급조절기능 제품인 전지, 탈지분유와 버터의 일반소비가 격감되어 향후 수급불안정시 아직까지 여전히 음용유의 소비율이 70%나 되는 유제품시장 상황에서 유가공산업의 경영불안요소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 대두됨
- 1991/1994의 기간 중 품목별 일반소비 감소율을 보면 전지분유가 5,090톤에서 1,411톤으로 72%가 감소, 탈지분유는 7,270톤에서 3,402톤으로 63% 감소, 버터는 4,805톤에서 3,034톤으로 37% 감소되었음.
- 치즈의 소비는 자연치즈와 가공치즈 모두 급신장되며 가공치즈는 100%수입원료, 자연치즈는 50~60%를 수입원료로 사용
- 특히 피자용 모짜렐라치즈의 국산 선호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00%수입원료제품이 가격경쟁으로 출시되고 있어 불원간 자연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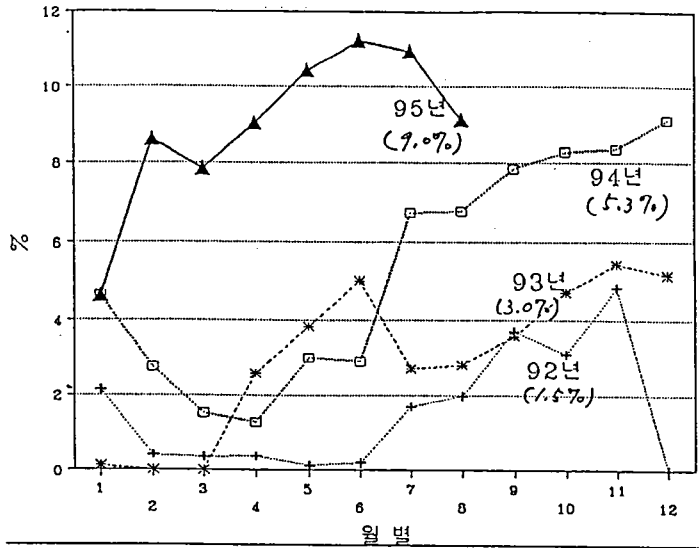


Fig. 8. 수입유제품의 유업체 사용비율 추이

- 주) 1. 수입유제품, 원료의 원유 환산량 비율임.
- 2. (%)는 연 평균 값임
- 3. 일부 유업체의 실적임

Table 5. 유제품 수입현황

품목	1992	1993	1994	1995. 8누계	95. 8/94. 8(%)	비고
탈지분유	7,950	12,660	10,254	5,444	-28	대체
전지분유	880	2,183	1,327	264	-78	·
유장분말*	17,571	18,800	27,178	25,727	157	
	*969	*1,359	*8,724	*11,567	*154	·
유당	8,967	9,979	11,424	6,252	-16	
코코아조제	9,034	11,976	11,222	7,015	0	·
조제분유	-	18	2	1	-50	·
우유함유*						
조제식료품	1,596	1,858	6,836	7,384	56	·
카제인	6,887	6,178	5,945	3,742	-6	
버터	369	483	515	314	-3	·
버터조제품*	14,669	1,612	7,913	7,782	77	·
신선치즈	44	49	96	654	1,105	·
가공치즈	156	215	3,025	6,943	219	·
계	68,123	66,011	85,737	71,522	56	

도 대부분 수입원료에 시장을 모두 내놓게 될 전망이다.

- 종합적인 수입유제품의 전망은 향후 4~5년간 수입유제품의 소비비율이 계속 증가 되고 현 소비수준에서 예상되는 국내산 원유 사용 비율은 시유 약 65%, 가공음용유의 일부 약 3%, 신선생치즈의 일부 약 2%, 고급발효유 약 1~2%로서 총유제품 소비의 70% 정도로 예상

1995년 국민 1인당 우유소비 예상량은 약 50kg으로 향후 10년간 81kg까지 증가가 전망되며 이때 총원유환산량은 370만톤으로 그 중 국내 원유소비율이 60%로 축소되면 원유소요량은 약 230만톤, 70%가 유지된다면 약 260만톤이며 현재 생산보다 15~30% 더 필요

- 우유의 고급화 경쟁은 최근 전반적인 유질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식생활 관심으로 1~2년 사이 시들해졌으나 유방염파동 다시 재현될 조짐.
- 이를 틈타 다시 고급우유논쟁이 활화산화될 전망이다이며 이때 수입음용유의 본격적인 국내 상륙작전이 개시될 가능성 있음.
- 이미 일부 업체에서 기능성 음용유의 원료수입 국내 가공의 준비가 검토되고 있음.
- 유업체들의 고부가가치상품 개발품으로 기능성 음용유의 개발이 활발하며 유가공의 본질이 전도되어가는 인상이 부각되고 있음.
- 결국 우유라는 기본 틀 안에서 우유를 일상 식품의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느냐? 아니면 기호 내지 기능 특효약으로 전략시켜 버릴 것이냐?는 문제의 와중에서 유가공업의 현실적 문제 제기됨-낙농가와 유업체가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
- 발효유도 고급화 신속히 진행 중으로 원유사용 비율 다소 제고될 전망
- 우리나라 낙농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는 유통구조와 비위생적 취급문제임. 음용유의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나 됨.

또 원유의 생산에서 부터 가공,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콜드 체인구조가 유통단계에서 와해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음

1) 향후과제

(1) 생산

-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사료자원의 부족 문제가 최대의 난관
새로운 사료자원의 발굴, 개발, 확보가 향후 2000년 이후 낙농의 자급 성패를 좌우
이스라엘, 일본 나고야 낙농과 같이 식품부 산물사료의 적극개발과 활용체제를 제공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
- 가격 경쟁력 제고 필요-원유의 농가수취가만 올리는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세심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며 낙농가도 생산성과 노동효율화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노력 경주해야 함
- 원유의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품질개선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제도개선
- 검사의 공정화

(2) 낙농가의 각성

유업체의 신뢰성 회복 등 일련의 총체적 노력 필요

(3) 유가공

- 원유와 유제품의 유통체계를 과감히 개선
완벽한 콜드체인 체계화 실현
유통비용 절감방안 강구
- 좋은 원유로 깨끗하고 정통적인 유제품의 제조와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유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낙농과 유가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학을 가진 유가공사업태도가 필요한 시기
- 모든 낙농국들이 자급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자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를 값싸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낙농과 유가공의 기본목적과 정책을 바탕으로 낙농 / 유가공산업을 발전시켜온 낙농선진국들의 지

혜를 먼저 배워야 할 때이다.

II. 맺는 말

세계의 낙농주도국들인 EU와 미국은 자급을 원칙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GATT 다자간 협상을 전개하여 우선 자급의 수준에 생산물량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잉여와 재고부담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었다. 한편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오세아니아국가들의 대폭적인 공급물량의 증가와 가격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우유증산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제품 무역량의 절반을 점하던 EU의 생산 감축과 수출 감소로 세계의 주요 유제품의 재고는 바닥이 나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더우기 동남아의 신흥경제국가들을 비롯한 수입국들의 수요확대 유발의 진행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공급부족, 수요초과의 현상은 계속 발전되고 있으며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은 유제품가격의 추

가직 상승자극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낙농과 유가공업은 유제품의 본격적인 시장개방이 시작된 1995년부터 수입유제품이 폭발적으로 도입되어 원유대체 또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제품가격의 추세와 정통유제품이 아닌 조제혼합유사제품과 같은 저급 원료의 사용으로 유가공업의 장래가 매우 불안정할 것이 우려되고 있어 원유사용율을 제고하여 원유자급을 기초로한 유제품의 개발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유가공품의 인식제공이 우리나라 유가공업의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가 아닌가한다.

한편, 국내의 낙농생산부문은 지난 수년간 팔목 할만한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확대를 실현하여 왔으나 아직 유질개선이 다소 미흡하고 원유의 가격 인하에 실패하고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속히 원유의 검사기능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시급하고 원유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지원이 필요하다.